



양돈장의 백신접종 필요성과 주사방법

한 달전의 일이었다. 필자는 회원농장의 정기방문을 위해 OO군 소재 양돈장을 방문하였고 뜻하지 않은 상황에 직면하였다.

농장방문 동안의 할 일은 '97년 2월~9월까지의 경영분석을 해야하는 주간이었다. 사무실에서 충분한 자료정리와 분석을 한 결과, 상기한 기간동안 증체 1kg당 소요된 사료비가 비육돈 부문에서 624원, 번식돈 부문을 통합한 농장전체 사료비가 785원 수준이었으며, 비육돈 부문의 사료요구율이 1.75, 농장전체 사료요구율이 상기한 기간동안 2.21이었고, 사료비와 약품비가 출하생산비에서 차지하

는 비율이 46.8%정도를 유지하는 만족할만한 기록에 칭찬을 아끼지 않을 목적으로 농장방문을 하였다.

뜻하지 않은 상황은 돼지 1복(자돈10두)의 자돈들이 설사를 심하게 하여서 폐사되었다는 것이며 부검조건이 필요했다. 진단시 대장균성 설사이었고, 발생원인에 촉각이 곤두섰다. 또한 8월~11월사이 TGE와 PED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유사증상을 보이는 농장들의 문의가 많은지라, 혹시나 하는 심경으로 문진을 시작하였고, 병력을 청취해 보았다. 결과는 이외로 단순한 곳에 집중되었고, 그것은 분만 예정돈 이동시 돈체



이 승 섭 원장
(한별피그클리닉)

소독을 계속 해 왔었는데, 설사 병 발생 보름전부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것과 일교차가 커질 계절이라 안개분무 소독을 빼먹었다는 소리에 초점이 모아졌다.

방문목적을 선회하여, 기본 조치(대장균백신, 모돈에 분만 전·후 항생제 급여, 수세소독) 외에 부실하였던 상기조치를 강조한 일주일 뒤에 점검한 결과, 농장에서의 설사증상은 자취를 감추었다.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졌다”라는 속담이 생각나는 이유는, 이 글을 읽는 양축가들이 설마 돈체소독, 안개분무소독 정도를 조금 소홀히 했다고 큰 문제가...라는 안이한 생각을 가질까 염려되기에 떠올려본다.

1. 농장내 사용약품분류를 하자

흔히들 얘기한다. 약품비는 생산비의 5%정도를 차지하고 사료비는 60~70%를 차지한다고... 하지만 그간의 자료분석(1년이상)을 해 본 결과, 사료비는 출하생산비의 50%미만이었고 약품비는 5%이내 이었다.

그럼 왜 이런 소리가 농가에 들고 있는 것일까?

정확한 분석없이 허실이 많은 양돈을 해 온 것은 아닐까 자성해 보도록 하자.

참고로 (표1)에 예시농장의 약품사용현황(PSY 23두인 농

장)을 소개해 본다. 기준으로 삼을 필요는 없으나,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고 특정한 질병발생도 문제되지 않는 농장이므로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표1)에서

보는 결과를 풀어보면, 소독제의 사용비율이 다소 떨어지는데 오폐수량의 문제로 인해 수세소독을 줄이면서 항생물질의 사용으로 문제점에 대처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상기한 농장의 위치와 주변환경을 고려해 볼 때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강조점 두가지가 있다. “귀하의 농장에서의 백신사용비율과 소독제 사용비율을 점검해 보라” 백신이 20%이상을 유지하고 있는지 소독제 사용비율이 10%이상이 되는지...

그런 후 “주요 발생 질병들의 목록을 작성 해 보라”

흥미있는 분석결과를 얻게 될 것이며, 백신 및 소독제 사용량과 질병발생과의 통계치를 따져볼때 통계상의 오차가 다소 난다고는 생각되지만, 서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되는 것만은 틀림없다고 할 수 있다.

(표1) 약품 분류별 입고현황

(기간 : 97년 2월~9월)

분류별 종류	백 분 율
백신	21.2%
항생제	26.1%
영양제	13.6%
치료제	7.3%
호르몬제	2.2%
구충제	3.2%
살충제	0.3%
수의기구	0.5%
소독제	5.2%
기타	20.4%
합계	100%

2. 백신접종은 필수 선택인가?

그렇다. 백신접종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다. 설령 완벽한 방어력을 얻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방차원으로서는 달리 선택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질병을 백신으로 대처해야 하는가란 질문에는 생각해 볼 점들이 몇가지 있다. 그것들 중에 고려해야 할 점들로 병원성과 면역원성을 우선하여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은 분명히 백신을 접종했는데, 돼지의 체내에서 항원·항체 반응이 더디거나 혹은 면역원성이 없어서 주입된 항원(백신)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백신접종의 효과를 제대로 거둘 수가 없는 것이다. 돼지 질병들중 몇 종류들이 이러한 상황에 속하게 되는데, 이외로 양축가들은 쉽게 지나쳐 버리는 것 같다.

3. 농장내 발병률 감소를 위한 제안

1. 백신 방어가 가능한 질병은 반드시 백신접종을 하자

2. 돈사내 정화를 하도록 하자. (수세소독, 안개분무소독, 돈체소독)

오염된 하천을 정화(쓰레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출하기만 한다면

그 물은 썩어 버리게 되듯이, 돈사내 존재하는 상재 세균의 제거를 위해 수세와 안개분무소독을 생활화 하자.

3. 암모니아 가스제거와 정장작용을 하는 환경 개선제를 돈군에 투여하자(유익미생물)

4. 대문(코)과 현관문(기관지) 단속을 철저히 하자.



외출시 제일먼저 생각하는 것이 집안 단속(현관, 대문) 아니던가?

돼지들에게도 철저히 집안단속을 하여 주변의 균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해주어야 안전하지 않을까?

5. 항생제와의 병행사용을 잘 조화시켜야 한다.

자력으로 진압할 수 있는 화재는 119가 필요없겠지만 사랑스러운 우리의 돼지 몸속에 자력으로 진화하지 못할 불이 났다면, 특급 소방수의 투여가 필수적이지 않을까?

6. 주변의 전문가의 소리를 잘 경청하도록 하자. **養豚**

본지 캠페인

샘처럼 솟는 힘, 돼지고기 먹은 힘